

보도시점 2026. 8. 19.(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6. 8. 18.(화)

사라진 ‘먹황새’ 다시 우리 하늘로… 국립생태원, 몽골과 손잡고 복원 본격화

- 몽골 야생생물과학보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현지 조사 후 야생 개체군 도입
- 국제협약 준수 위한 ‘비위해평가’ 추진… 동북아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먹황새의 복원을 위해 몽골 야생생물과학보전센터(WSCC)와 야생 개체군 국내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철새이자 나그네새인 먹황새는 낙동강 하류, 천수만, 제주도 등지에서 20마리 미만의 매우 적은 수가 월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몸길이 90~100cm의 대형 조류로 몸은 전체적으로 녹색과 보라색 광택이 있는 검은색이며 부리와 다리, 눈주위가 붉고 가슴과 배부분이 흰색이다. 1965년 경북 안동시(가송마을)에서 번식했던 기록이 있으나 1968년 이후 국내에 번식기록(번식쌍 절멸)이 없다.

양국의 기관은 먹황새 야생 개체군의 국내 도입을 위해 올해(2026년) 6월 8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먹황새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복원 및 재도입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업무협약에는 △먹황새 복원사업 공동 추진, △야생개체군 분포 및 번식 현황 조사, △국제협약(CITES) 준수 위한 비위해평가* 및 개체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협력, △유전 다양성 관리 및 증식기술 협력, △학술교류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비위해평가: 야생 개체의 포획이나 국제거래가 자연 개체군의 존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필수 과정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몽골 헨티주 현지에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먹황새 번식 실태를 조사하고 비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 조사 결과, 총 7개의 먹황새 둥지를 확인했으며, 이 중 4개 둥지에서 총 10마리의 먹황새 유조(어린 새)가 발견되는 등 몽골 먹황새 개체군의 안정적인 번식이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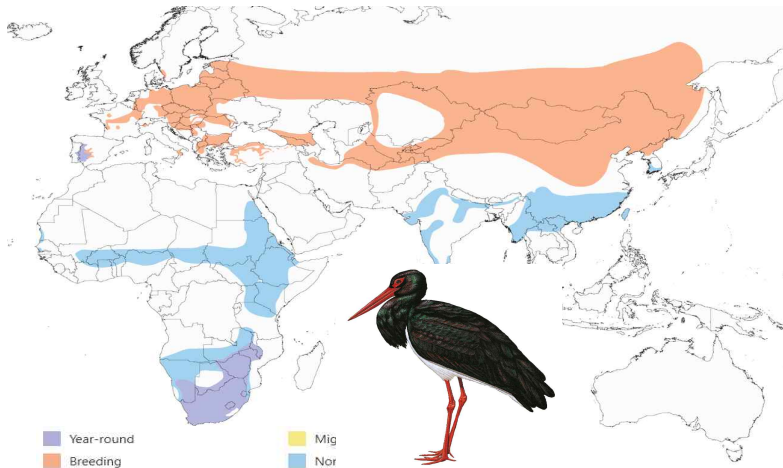
국립생태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비위해평가를 완료하고, 국내 검역 및 국제 허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과학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2027년) 상반기 중에 먹황새 개체 도입을 비롯한 국내 번식 시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먹황새 복원은 단순히 한 종을 되돌리는 사업을 넘어, 과학적 근거와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생태계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몽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라진 먹황새가 다시 우리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먹황새 현황.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도입을 위한 비위해평가.
3. 한국-몽골 먹황새 복원 협력 구축 사진.
4. 몽골 헨티주 먹황새 서식지, 번식둥지 및 조사 사진. 끝.

담당 부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복원연구실 조류복원팀	책임자	팀 장 윤종민 (054-680-7410)
		담당자	차 장 최 진 (054-680-7421)

- (분류) 황새과(Ciconidae) 황새속(*Ciconia*) 단형(單形, monotypic taxon)
- (분포)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쳐 분포(번식지, 월동지)



경북 안동 번식쌍 절멸('68년), 월동하는 20개체 미만 지속 관찰('60~'21년)

- (생태) 산림-하천 생태계 서식 대형 습지성 조류로, 절벽 또는 나무 위에서 번식하며, 어류가 주식인 육식성 조류
- (멸종위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17년), 지정·보호, CITES 부속서 II
- (절멸현황)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마지막 번식 기록(동아일보, '65년)



地球(지구)위에서 사라져가는 새 韓國產(한국산)황새

동아일보 | 1965.06.15 기사(뉴스)

地球(지구)위에서 사라져가는 새

韓國產(한국산)황새

世界自然保護聯(세계자연보호연)서保護(보호)요청

4年前農林部踏査(연전농림부탐사)서도 못 찾던 洛東江邊(낙동강변)의 隱者(은자)

먹항새棲息處(서식처) 발견

安東陶山面(안동도산면) 30『미터』 버랑서

本社特派員望遠(본사특파원망원)렌즈로 捕捉(포착)

【安東(안동)에서 朴容允(박용운)本社特派員(본사특파원)발]

○—「황새」중에서도 洛東江(낙동강)변에 사는 鳥鵲(오학)(먹항새)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희귀한 존재다. 洛東江(낙동강)변에 있는 安東(안동)군 陶山(도산)면 佳松(가송)동의 天馬(천마)봉에는 단한쌍의 먹항새가 옛날부터 살고 있는데 이 먹항새가 금년 봄에는 전귀하게 도새끼 한쌍을 낳아서 마을 사람들의 화제의 대상이 되 고있을뿐 아니라 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온몸이 흑갈색의 어두운 빛깔로 덮여 있는데 배는 순백색, 짙은 청동빛의 뒷머리에 붉은 빛갈의 부리와 긴 다리를 가진 이 먹항새의 주식물은 물고기 종류다.

○—왜정때(1939년) 천연기념물 72호로 慶北(경북) 安東(안동)군 陶山(도산)면 佳松(가송)동이 鳥鵲(오학)번식지로 지정된 이래 그의 실태를 조사 못해 오다 4년전에 해방후 처음으로 실시한 農林部(농림부)의 답사때에도 어미새조차 발견 못한 이 먹항새는 이번에 비로소 그 서식처가 발견되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한참 번식하던 20여년전에는 십여마리가 부근에 떼지어 살고 있었으나 6.25동란 후 차츰 줄어들어 요즘에는 아주 보기 드물더니 지난봄 洛東(낙동)변 높이 30『미터』 가량의 험준한 절벽에서 알을 품어 새끼 알전에 하얀 털의 새끼 두마리를 낳았다.

○—원래는 대단히 수줍어하는 성미여서 인적드문 강변에 寒食(한식)전후해서 날아와 날짐승에게는 절대로 겁근 못할 절벽 중턱의 약간 떨어진 곳에 비를 피해 나무가지와 이끼를 모아 둥구미를 만들고 조용히 살다가 늦은 가을을 기다려 날아간다.

□ 비위해평가(NDF) 개념

- 비위해평가(NDF, Non-Detriment Finding)는 CITES 부속서 등재종의 국제거래에 앞서, 해당 개체의 야생 포획·수출이 원산국 야생개체군의 생존과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절차
- 먹황새는 CITES 부속서II 등재종으로, 야생개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산국 과학당국이 수출로 인한 종의 생존 위협 여부를 검토하여 비위해 판단 필요
- ※ 이번 평가는 몽골 정부의 CITES 과학당국이 최종 판단하며, 국립생태원과 몽골야생생물과학보전센터(WSCC)는 현지조사와 과학적 자료 확보를 위해 공동 추진중

□ 주요 평가항목

- 먹황새의 분포범위, 야생개체군 규모와 밀도 및 최근 증감 추세
- 번식쌍·번식둥지 현황, 번식 성공률 및 어린 새의 생존 가능성
- 취식지·번식지 등 주요 서식지의 안정성과 위협요인
- 도입대상 개체의 수, 연령 및 포획 시기·방법의 적정성
- 개체 확보가 해당 번식쌍과 지역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
- 포획·수출 이후 야생개체군의 자연적 회복 및 지속가능성
- 관련 법령에 따른 포획·수출의 적법성과 사후 모니터링 계획
- ※ CITES 지침은 NDF 검토 시 종의 보전상태, 생물·생태적 특성, 개체군 추세, 포획 수준과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CITES NDF 지침

□ 비위해평가 추진 현황

- 국립생태원과 WSCC는 2026년 6월부터 몽골 헨티주 일대에서 먹황새의 번식지와 취식지, 번식쌍 및 어린 새 현황에 대한 조사를 추진중
-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체군 규모와 안정성, 번식 성공 여부, 서식지 상태 및 제한적 개체 확보가 야생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비위해평가 결과를 몽골 정부에 제출하여 비위해 판단과 CITES 수출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추진
- 양국의 검역·허가 절차를 거쳐 과학적으로 적정한 범위에서 도입대상 개체를 선정하고, 국내 도입 전후 검역, 인공증식 및 복원연구에 활용할 계획



국립생태원-몽골야생생물과학보전센터
업무협약



몽골 환경기후변화부에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서한 전달

붙임 4

몽골 헨티주 먹황새 서식지, 번식 등지 및 조사 사진



몽골 먹황새 취식지(습지)



몽골 먹황새 번식지(숲)



먹황새 둥지 내 새끼('26.6월)



먹황새 둥지 내 새끼('26.7월)



국립생태원-몽골야생생물과학보전센터 공동조사(좌·현장조사, 우·드론조사)